



미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으로 2 거래일 연속 약세

미국 증시 리뷰

국내 휴장 기간 중 미국 증시는 주요 제조업 및 소비자지표 부진 속 인플레이션 경계감, 금리 급등 사태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하락 마감(28일~1일 2 거래일 누적, 다우 -0.7%, S&P500 -0.8%, 나스닥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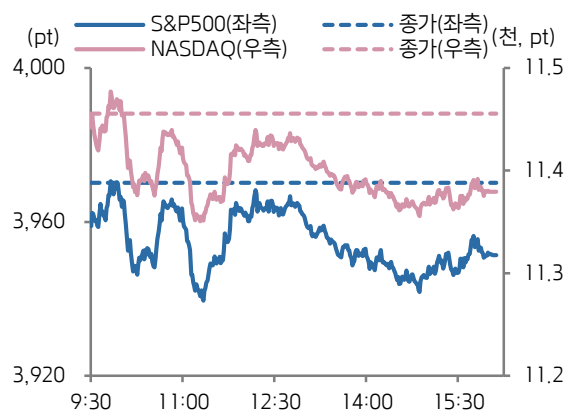
28일(화)에는 시카고 제조업 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 경제지표 부진으로 침체 우려 부각되며 하락 마감 (다우 -0.7%, S&P500 -0.3%, 나스닥 -0.1%). 1일(수)에는 2월 ISM 제조업 지수 반등, 유럽 물가 재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중앙은행 긴축 우려 확대, 10년물 금리 급등 등이 하방압력을 가하며 혼조세 마감. (다우 +0.02%, S&P500 -0.47%, 나스닥 -0.66%).

2월 ISM 제조업지수는 47.7(예상 48.0, 전월 47.5) 기록하며 6개월만에 상승,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 50을 하회하며 위축국면 유지. 신규주문은 전월 42.5에서 47.0으로 상승하며 2020년 이후 가장 큰폭의 상승세 보였으나, 생산 지수는 48.0에서 47.3으로 감소. 또한 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한 44.5에서 51.3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가중. 한편, 미국 S&P 글로벌 2월 제조업 PMI는 47.3(예상 47.8, 전월 46.9)으로 부진.

1일에 발표된 2월 중국 제조업 PMI 52.6(예상 50.5, 전월 51.1), 비제조업 PMI는 56.3(예상 50.7, 전월 54.4) 기록하며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기록. 위험선호심리 개선되며 항생지수 내 기술주 강세. 1일에 발표된 프랑스와 스페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며 유럽 증시에 긴축기조가 고조됨. 프랑스의 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2%(예비치 6.0%), 스페인 CPI 6.1%(예비치 6.0%) 기록, 이에 따라 유럽 전역 물가 둔화가 더딜 것이라는 전망 제기. 1일 발표된 독일 2월 CPI 역시 9.35%(예비치 9.0%)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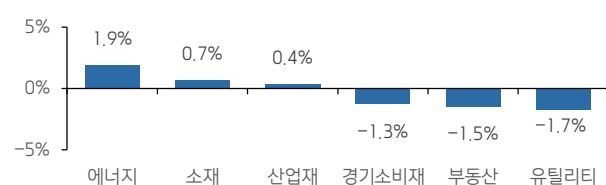
주택개량 소매업체 로우스(-5.56%)는 4분기에 시장 예상치보다 매출은 부진, 주당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23년 매출에 대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주택 수요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주가는 급락. 테슬라(-1.43%)는 현지시간 1일 오후 미국 텍사스 메가팩토리에서 열리는 투자자의 날 행사를 앞두고 저비용 전기차, AI 언급 등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영향으로 소폭 하락.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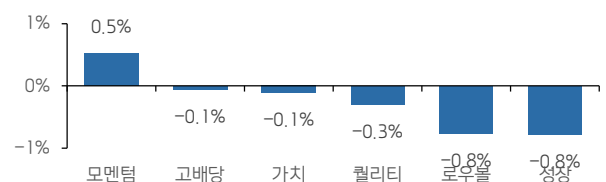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12.85	+0.42%	USD/KRW	1,315.47	-0.61%
코스피 200	314.80	+0.27%	달러 지수	104.39	-0.46%
코스닥	791.60	+1.45%	EUR/USD	1.07	-0.01%
코스닥 150	1,143.05	+1.97%	USD/CNH	6.87	-0.09%
S&P500	3,951.39	-0.47%	USD/JPY	136.19	+0%
NASDAQ	11,379.48	-0.66%	채권시장		
다우	32,661.84	+0.02%	국고채 3년	3.810	+0bp
VIX	20.58	-0.58%	국고채 10년	3.760	+0bp
러셀 2000	1,898.43	+0.08%	미국 국채 2년	4.876	+6.1bp
필라. 반도체	2,955.83	-0.09%	미국 국채 10년	3.993	+7.3bp
다우 운송	14,765.51	+0.29%	미국 국채 30년	3.954	+3.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15.75	-0.53%	WTI	77.72	+0.87%
MSCI 전세계 지수	629.02	-0.27%	브렌트유	84.39	+0.6%
MSCI DM 지수	2,714.57	-0.26%	금	1843.5	+0.37%
MSCI EM 지수	964.01	-0.33%	은	20.96	-0.01%
MSCI 한국 ETF	59.62	+1.91%	구리	418.1	+2.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1일 종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9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2.1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04.1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9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휴장 기간 출현한 미국 금리 급등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중국발 화재(제조업 PMI 개선 등)가 국내 증시에 혼풍으로 작용할 가능성 3.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결과에 따른 국내 2차전지주들의 주가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국내 증시 휴장 기간 2 거래일 동안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증시에 등장한 주가 재료들은 상방과 하방 요인이 공존하면서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지수의 방향성 베팅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단 하방 성격의 재료들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과 연준에 대한 부정적인 민감도가 이전에 비해 다시 높아지고 있는 모습. 가령, 2 월 미국의 ISM 제조업 PMI(47.7, 컨센 48.0)는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된 가운데, 그 안의 세부 항목 중 신규주문(1 월 42.5 -> 2 월 47.0)이 반등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가격지수(1 월 44.5 -> 2 월 51.3)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컨센(45.1)를 하회하는 등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제조업 데이터가 상승했다는 점은 불안 요소. 애틀랜타 연은, 미니애폴리스 연은 등 주요 연준 인사들도 인플레이션 문제를 근거로 3 월 50bp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거나, 5%대 기준금리를 2024 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식의 매파적인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미 10 년물 국채 금리는 작년 11 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4%대를 터치하는 등 금리 급등세가 재차 출현하고 있다는 점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에 제약적인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재상승 -> 연준 추가 긴축 전망 확산 ->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연준의 누적된 고강도 긴축 효과, 자산시장 조정으로 인한 기대인플레이션 정체 등을 감안 시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에서도 2 월 CPI(3 월 발표 예정) 및 3 월 CPI(4 월 발표 예정) 전망치를 각각 6.2%, 5.4%로 집계되며, 1 월(6.4%)에 비해 내려올 것이라고 제시했다는 점에도 주목해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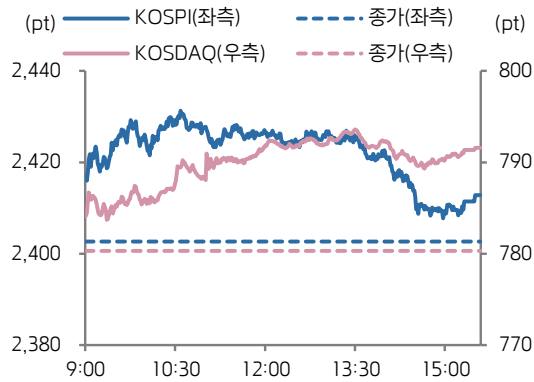
미국 쪽에서는 부정적인 데이터와 뉴스플로우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중국 쪽에서는 긍정적인 재료가 등장한다는 점도 주요국 증시의 위험선호심리와 하단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해 1 월 차이신 제조업 PMI(51.6, 컨센 50.2),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52.6, 컨센 50.5) 등 제조업 지표들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점은 2 월 중 기대감이 다소 악화되고 있었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개선”이라는 기대를 강화시켜주는 요인.

이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수출과 기업 이익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해진 증시에 온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 4 일부터 중국 양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타 중국의 1~2 월 경제 데이터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 이벤트 및 지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당분간 집중될 것으로 전망.

지난 28 일 한국 증시는 휴장기간 경계심리 속 외국인 순매도에도,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엘앤에프발 화재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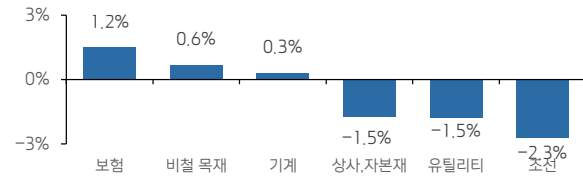
금일에는 휴장 기간 중 미국 증시 약세, 미국 금리 급등 부담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하겠으나, 중국 제조업 모멘텀 개선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 강화 등에 힘입어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또 2 월 한국 수출이 -7.5%(YoY)로 마이너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전월(-16.6%) 및 컨센(-8.7%)에 비해 양호했다는 점도 국내 수출 대형주 투자심리 및 외국인 수급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업종 관점에서는 최근 연이은 랠리를 전개하고 있는 2차전지주들의 주가 흐름이 주목할 포인트이며, 현재 시간(오전 7 시 기준)으로 진행중인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결과에 따라 이들 종목군들 간의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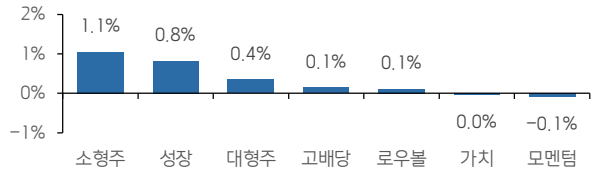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